

“김 회장 부자 분명 있었다”

‘보복폭행’ 피해자들 “회장아들 현장서 ‘아버지’라 불렀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경찰 출동 조폭 동원·감금 혐의 부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은 8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회장 둘째아들) 폭행 현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폭행 현장에 김회장 부자가 함께 있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윤도 씨 등 술집 종업원 5명과 S클럽 조모 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두사람 모두 차계산에 갔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현장에 있던 사람) 아버지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한화그룹의 김도 비서실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종업원들이 흔쾌히 장소 이동에 동의했다. 담배도 피우고 휴대폰도 사용했다”며 “남치” 부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맞으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도 피우고 전화도 하고 그랬겠냐”고 일축했다.

이들은 “끼리갈 당시에는 남치당하거나 어디 좋은 데서 밥먹고 헤어지는 것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당시 (현장에) 있

었던 사람이 아니면 (그 부위기를) 모른다”며 당시의 불안한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금 심정을 묻는 질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이 사건에 괜히 연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으며 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믿는다.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이라며 말을 흐렸다.

한편 보복폭행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범서방과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발생 전 20대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한화측의 지원 요청을 받고 폭행 현장에 청년들을 데려가 위력을 과시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변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캐나다로 도피한 오씨에 대해 인터폴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

으며 추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등 절차를 밟아 오씨를 적색수배(red notice) 명단에 올리고 체포·압송키로 했다.

경찰은 7일 밤 자진출두한 한화 협력업체 D도건 김도 사장을 피해자 2명과 대질 시키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김 사장의 사진을 확인토록 한 결과 “폭행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맞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김씨가 청담동 G주점 등 3곳의 폭행 현장에서 김 회장을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8일 오전 11시에는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한화그룹 김도 비서실장이 경찰에 출두했으며 “언론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언론에서 내가 조폭폭력과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만보과(만보과)라는 조폭폭력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같은 현장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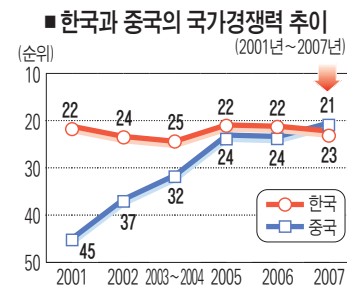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경쟁력 中에 추월 당했다

산업정책연구원, 한국 23위...중국 3단계 상승한 21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3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8일 내놓은 ‘2007 IPS 국가경쟁력연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점수가 45.77점으로 분석대상 66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PS측이 자체 분석해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분석 첫해인 2001년 22위에서 2002년 24위, 2003년과 2004년 25위로 하락하다 2005년과 2006년 2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다시 한 단계 하락했다.

조사대상 66개국 가운데 네덜란드가 65.98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매년 1위를 고수해오던 미국은 62.41점으로 2위로 밀려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홍콩이 8위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고 일본은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20위였다. 중국은 3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기업의 경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IPS의 국가경쟁력 분석은 시장수요 조건과 관련 산업, 기업경영요건, 생산요소조건 등 4개의 물적 요소 지표와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 분야 등 4개의 인적 자원 요소 등 모두 8개 부문에서 275개 지표별 통계와 설문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IPS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와 자원 등 생산요소조건은 하위권, 기업 전략과 글로벌 마인드, 해외투자 등 경영여건과 교통·물류·통신·교육 관련 및 지원산업요건은 중위권이었으나 시장의 크기와 질을 의미하는 수요조건은 조사대상 국가중 11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전남도 애태우는 농림부



홍행기
사회2부 차장

F1(포틀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 경주장 건설을 둘러싼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2010년 10월 첫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경주장 건설을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영암군 삼호읍 일대 F1경주장 예정부지의 소유권(매립권)을 갖고 있는 농림부와 토지양도·양수문제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토지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예상의 근거로 ▲지난 2005년 8월25일 기업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F1경주장 부지를 포함한 삼호읍 일대 1천만평을 전남도에 양도키로 했으며 ▲F1경기 트랙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56만 평이 농림부 등의 동의를 거쳐 공유수면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정부가 전남도에 땅을 준다는 원칙이 이미 세워졌으며, 이 땅을 체육시설 용지로 바꾸는데 농림부가 동의를 했고, 양도·양수에 대해 농림부와 내부 의견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땅을 빠른 시일 내에 양도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F1경주장 건설공사를 시작해 2009년 말까지 완공하고, 2010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거쳐 10월께 대회를 개최한다’는 일정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다급한 전남도와는 달리 농림부는 굼뜨기 그지없다. 농림부는 전남도의 요구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따라 적법하게 양도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농림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땅을 사유화할 수 있는 안에는 경주장 착공이 불가능하다.

전남도는 농림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어차피 땅을 양도해줄 것이라면, 왜 우선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농림부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물론 전남도의 지적처럼, 농림부로서는 자의적으로 토지우선사용승낙을 해줬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만 존중할 경우 경주장 착공이 지연되고 2010년 F1대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F1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빛이 바랄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 감안되어야 한다. 토지우선사용승낙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redplane@kwangju.co.kr

南 ‘군사 보장’ 우선...北 ‘NLL’ 논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첫날... 의제설정 의견 맞서

북 서해상 충돌방지 함께 협의 주장

관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8일 열린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경제협력에 관한 포괄적 군사보장 조처를 토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측 문성묵 대표는 이날 오전회의 종결 후 브리핑에서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비롯한 철도·도로 통행에 따른 군사보장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실현문제, 철도·도로 통행 및 열차시험 운영을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도 함께 협의하고자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측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총장은 “이번에 열차 시험운영에 관련된 문제만 토론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명백히 말씀 드린다”고 밝혀 회담의

제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논의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측 대표단 가운데 김응철을 가리키면서 “실무적인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실무단장으로 해군대좌(대령)”라며 “서해 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위한 근본문제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해군 실무자를 교체 투입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측은 3차, 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사실상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매듭짓는데 올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

다.

즉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통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을 미끼로 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회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하는 철도·도로를 이용해 차량과 인원이 오가는 데 필요한 군사적 절차를 담은 문서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북측이 여러 차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군사보장 합의서를 이용해 북측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도 부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 때문에 남북이 각각 핵심의제로 내세운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과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분리해 다루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 운영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관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 참석하는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남측 대표)과 일행이 북측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주체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美 종교관련 통계 사이트

북한의 ‘주체(Juche)사상’이 추종자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대 종교에 해당된다고 미국의 종교관련 통계사이트인 ‘어드허런츠닷컴(adherents.com)’이 7일 집계,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신도 수에 따른 세계의 주

요 종교’라는 통계자료에서 세계 최고 종교는 21억명이 믿고 있는 기독교이며, 2위는 13억명의 추종자를 가진 이슬람교, 3위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무교(無敎)로 그 숫자가 11억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현재 65억명) 3명 중 1명은 기독교도이고, 세계인구 5명 중 1명은 이슬람교도인 셈이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 TV방송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새로운 다이어트 컨설턴트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www.jir.wo.to

전립선염·조루증·방광염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리산한약방 T.(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싱그러운 새 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MODISH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왕족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화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카엘 침실세트(원결장롱12자+화장대세트4침대(4자침대))

Open기념 황트셀침대, 장수운들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트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카엘 거실장식세트
미카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카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 (062)350-8764